

##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

김 지 윤<sup>†</sup>                      이 훈 진<sup>‡</sup>                      박 승 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긍정적 평가를 받은 후 경험하는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불안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최근 부상하고 있으나,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온 세 가지 인지적 측면을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sup>‡</sup>이라는 통합적인 틀의 연구주제로 보고,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이 사회불안에 특정한 변인인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중 두 측면(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는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유의미하게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자기 표상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및 임상적 함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불안,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자기 표상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현재는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에 근무 중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훈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E-mail: hjlee83@snu.ac.kr

사회불안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호감과 인정을 얻기 위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한편,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재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Hirsch & Clark, 2004). 사회불안장애에 관한 인지 모델에서는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주의 및 해석 편향이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기여한다고 가정하며, 이를 지지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누적되어 왔다(Morrison & Heimberg, 2013; Rapee & Heimberg, 1997).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자극을 더 예민하게 처리하고(Bar-Haim, Lamy, Pergamin,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7),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들보다 타인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라고 믿거나 부정적 평가를 더 많이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Hirsch & Clark, 2004; Wilson & Rapee, 2005). 특히, 사회불안과 관련한 핵심적인 인지적 특성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중요하게 다뤄져 왔으며(Mark, 1969; Nichols, 1974), 이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관한 염려로 주로 측정된다(Leary, 1983).

한편,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긍정 평가를 시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인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Chen, Ehlers, Clark, & Mansell, 2002; Taylor, Bomyea, & Amir, 2010), 긍정적 평가를 직면한 후 이를 처리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긍정 평가를 추구한다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긍정 평가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Wallace & Alden, 1997; Weeks, Heimberg, & Rodebaugh, 2008).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positive evaluation)이란, 공

개적으로 호의적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은 타인의 주목과 사회적 비교를 수반하기 때문에 불안을 촉발한다고 여겨진다(Weeks, Heimberg, & Rodebaugh, 2008).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 한 후에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다른 불안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와 사회불안장애를 변별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Fergus et al., 2009; Kocijan & Harris, 2016; Wang, Hsu, Chiu, & Liang, 2012; Weeks, 2015; Weeks, Heimberg, & Rodebaugh, 200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울과 달리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발표 상황에서 심박수의 증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Weeks & Zoccola, 2015). 또한, 모의 면접상황에서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피드백을 받지 않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보다, 긍정적 피드백을 받은 직후 더 많은 불안 행동과 더 낮은 면접 성과를 나타냈다는 결과도 있어(Budnik, Kowal, & Santuzzi, 2015),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긍정 평가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은 사회불안 증상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이처럼 긍정적 평가를 받은 후 경험하는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불안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긍정 평가 경험의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개념으로, 단일한 척도로 계속해서 연구되고 나아가 우울증상, 섭식장애 또는 알코올 사용과의 관련성이 탐색되고 있는 한편(Howell, Buckner, & Weeks, 2016; Jordan, Winer, Salem, & Kilgore, 2017; Menatti, DeBoer, Weeks & Heimberg, 2015; Reichenberger, Wiggert, Agroskin, Wilhelm, &

Blechert, 2017), 긍정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지적 측면에 관해서는 다수의 척도가 개발되어 있기는 하나 제한된 연구만이 이루어진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반응 결과나 현상에 비중을 둔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기저에 있는 인지적 과정과 심층적 특성을 반영하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에 대해 탐구하였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Wallace와 Alden(1995)은 대화를 나눈 후 긍정적 또는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조건,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 등 세 조건으로 나누어 사회불안 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조건 처치 후, 사회불안 집단에서는 스스로 평정한 자신의 능력 수준, 즉 사회적 효능감은 조건 간 차이가 없었으나, 추후 대화 상대가 나에 대해 갖게 될 기대수준(standard)을 추측한 결과에서는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한 조건이 다른 조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통제집단이 긍정적 피드백 조건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 피드백 조건에서는 타인의 기준을 유의미하게 높게 평정한 결과와는 대비된다. 긍정적 상호작용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사회불안 집단에서는 긍정적 상호작용 후 오히려 타인이 미래에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Wallace & Alden, 1997). 한편, 부정적 상호작용 조건에서 사회불안 집단은 상호작용 전에 비해 후에 상대방의 기준에 대한 예상이 높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 평가를 받은 후에 타인의 기대는 높아지지만 자신의 능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실망시킬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존재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Wallace와 Alden(1995, 1997)은 이것이 타인은 비판적이며, 높고 경직된 기준을 가지는 한편, 자신은 부족하다는 사회불안의 핵심적 측면과 맞아맞아있기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후속 연구로 Alden, Taylor, Mellings와 Laposa(2008)는 질적 자료를 통해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종류의 해석편향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앞서 언급된 결과와 같이, 높아진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미래에 결국은 타인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을 측정하기 위해 긍정적 사건에 대한 해석 척도(Interpretation of Positive Events Scale; IPES)를 개발하였다. IPES 점수는 공황장애나 범불안장애보다 사회불안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Laposa, Cassin, & Rector, 2010).

두 번째는 실제 수행과 긍정 평가 간 차이를 가정하는 액면가(Face Value)에 대한 평가이다. 이를 발전시켜 다른 연구자들이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실제 수행에 비해 타인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과 타인이 부정적 평가를 숨긴 채 겉으로만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먼저, Weeks(2010)는 사회불안 환자에게 자주 발견되는 긍정성을 최소화하고 부정성을 극대화하는 인지적 왜곡 또는 자동적 사고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를 보면,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과 결과를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외부 요인 덕으로 돌리는 왜곡된 생각들이 사회불안장애에서 자주 나타나고, 이것이 효과적인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시사되었다(Heimberg & Becker, 2002). 이에 따라 Weeks, Heimberg, Rodebaugh와 Norton(2008)은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 사회적 피드백을

받은 후에 불편함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피드백이 부정확하다는 지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긍정 평가의 긍정성을 최소화하고 부정성을 극대화하는 인지적 편향을 측정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절하 척도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Outcomes Scale; DPSOS)’를 개발하였다. 상대방이 호의적이고 사교적이기 때문에, 내 능력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여 결국 긍정 평가를 가치절하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이 인지적 편향은 사회불안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하고 새로운 변인으로 보고되었다(Weeks, 2010; Weeks & Howell, 2012). 다음으로, Vassilopoulos와 Banerjee(2010)는 긍정 평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긍정적 사건에 대한 평가절하 척도(Discounting of Positive Event Scale; DPES)’를 개발하였다. 긍정적 사건에 대한 평가절하 척도는 상대방이 내게 친절하고 좋게 이야기하는 행동이 가식적인 태도여서 마음 속에는 부정적 평가를 숨기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선행연구에서는 IPES, DPES 점수 모두 우울과 상태 불안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예측하였다(Vassilopoulos & Banerjee, 2010).

하지만 위의 세 척도가 사회불안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고 긍정적 평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공유하나, 아직까지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처럼 통합적인 관점 하에서 세 측면을 모두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온 세 가지 측면의 기존 변인들을 ‘긍정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라는 통합적인 틀의 연구주제로 보고, 이를 더 정교하게

이해할 발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세 측면의 차별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세부 내용에 따른 명칭을 새롭게 정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긍정적 결과로 인해 타인의 기대가 높아질 것이지만 자신은 변하기 어려우므로 미래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긍정적인 사건이 향후 부정적인 사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는 예기불안을 동반하게 된다. 이 해석은 Alden 등(2008)이 개발한 IPES 척도로 측정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음 번에 내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단점이 있다.” 문항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호의적이고 예의바르기 때문에, 실제의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결국 긍정 평가를 가치절하하는 것이다. 이 해석은 Weeks (2010)가 개발한 DPSOS 척도로 측정되고, “내가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아닐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나의 능력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에 좌우된다.” 문항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와 대조적으로, 상대방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이 이면에 부정적 평가 또는 본심을 숨기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성이다. 이 해석은 Vassilopoulos와 Banerjee(2010)가 개발한 DPES 척도로 측정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손한 겉모습 뒤로 자신을 숨기는 법

을 배운다.”, “내게 너무 친절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등의 문항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측면을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위의 세 요인이 공통적으로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새로운 변인 이면서, 사회불안의 특징적인 인지라는 결과(Laposa et al., 2010; Vassilopoulos & Banerjee, 2010; Weeks, 2010)가 국내 연구에서도 반복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관되게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과 공병률이 높은 변인인 우울에 비해 사회불안과 더 높은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은 편집 성향과의 관련성도 추측되나, 아직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우울, 편집 등의 임상적 변인에 비해 사회불안장애에 특징적인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기존에 잘 알려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더하여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에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지 검증하였다.

더불어,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가지 측면은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 측면이 각각 지니는 차별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각 측면이 자기 표상 및 타인 표상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과학적 개념의 간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 측면 중 어떤 인지적 특성이 사회불안 증상의 심각도와 가장 밀접한지 확인하였다.

나아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긍정 평가를 받더라도 부정적인 자기 표상을 변화시

키지 못하는 심리적 과정을 정교화하기 위해 인지모형에 기반하여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갖는 영향력과 자동적 사고로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인지모형에 따르면, 사회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기상을 품는다. 사회적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개인 내부의 믿음에 따라 정보처리가 일어나게 되면서,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해석을 자동적으로 하고, 이는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인지적 설명의 핵심이다(Clark & Wells, 1995; Heimberg et al., 2010).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불안장애와 관련된 역기능적 신념의 핵심요소이며,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수동적이고 잘 사귀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김정호, 조용래, 이민규, 2000; 오은혜, 노상선, 조용래, 2009; Hirsch, Clark, Mathews, & Williams, 2003; Rapee & Heimberg, 1997). 즉, 자동적 사고가 핵심신념에 뿌리를 두면서 당면한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반응을 결정한다는 인지모형을 고려할 때, 긍정 평가에 관한 부정적 해석을 매개변수로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것이 사회불안에 관해 보다 정교한 이해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적 사고인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자기 표상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은 사회불안, 우울, 편집 성향과 차별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3)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자기 표상과 유의미

한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4) 긍정 평가의 부정적 해석은 자기 표상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IRB No. 1407/001-003).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한 후, 대학생 19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0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남자는 102명, 여자는 88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21.42세( $SD = 2.41$ )였다.

### 측정도구

####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iebowitz(1987)가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박선영(2003)이 번안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수행상황에 대한 불안(두려움) 정도와 회피 빈도를 측정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 13문항과 수행상황 9문항에 대해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 또는 전혀 회피하지 않음)에서 3점(매우 불안함, 또는 항상 회피함)의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 )은 .81~.9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92로 나타났다.

#### 긍정적 사건에 대한 해석 척도(Interpretation of Positive Events Scale: IPES)

Alden 등(2008)이 개발한 척도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가진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 질적으로 도출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여 대학생 및 일반화된 사회불안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척도로, 전영주(201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ES는 긍정적 사회적 사건 이후 타인의 기대가 높아질 것이지만 자신은 미래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걱정을 주로 측정한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기색을 보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을 실망시킬 까봐 걱정이 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음 번에 내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단점이 있다.” 등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전영주(2011)에서 내적 일관성은 .86이었고, 4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87이었다.

####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한 가치절하 척도(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 Scale: DPSOS)

Weeks(2010)가 일반 대학생 집단을 사용하여 척도를 개발한 후 사회불안장애 임상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다시 타당화하였고, 국내에서는 한상연(2015)이 번안 및 타당화하였다. 이 척도의 타인 귀인 요인은 상대방이 호의적이고 예의바르기 때문에, 실제의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것이라는 해석을 주로 측정하고 자기 귀인 요인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자신의 특성으로 귀인시키지 못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나의 농담이 재미없어도 웃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그 이유는 나보다는 상대방 때문일 것이다.”, “내가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아닐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나의 능력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에 좌우된다.” 등의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잘 모르는 사람과 있는 상황에서의 반응을 응답하도록 지시가 이루어지며, 0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9점(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상연(2015)에서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90,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89로 나타났다.

**긍정적 사건에 대한 평가절하 척도  
(Discounting of Positive Events Scale: DPES)**

Vassilopoulos와 Banerjee(2010)가 개발한 척도로 240명의 대학생 표본을 사용하여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영주(201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DPES는 타인이 진짜 의도를 숨긴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사람들은 좀처럼 나에게 대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누군가 내게 관심을 보일 때, 나는 그것이 표면적이고 잠시 뿐인 관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를 좋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그저 호감 받기를 원할 뿐이지, 그 말이 진짜 내가 좋다는 뜻은 아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전영주(2011)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91, 4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90이었다.

**자기 및 타인 표상 척도-형용사 평정형(Self & Others Representation Inventory-Adjective Checklist: SORI)**

박선영(2003)이 권석만(2001)의 문장형 척도를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 및 타인에 대한 호의성, 사교성, 유능성, 완고성, 신체적 긍정성 차원으로 25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사교성은 사회적 활동성과 대인관계 능력을 나타내고, 호의성은 선함, 따뜻함 등의 특징을, 유능성은 사회적 성공, 똑똑함 등의 특징을, 완고성은 고집이 세고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호의성, 사교성, 유능성의 차원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표상으로 17문항, 타인 표상은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6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시된 형용사 쌍 중에 어느 쪽에 어느 정도로 해당하는지 응답하게 된다(예: 나쁜 - 1점(매우 그렇다), 2점(상당히 그렇다), 3점(약간 그렇다)/ 4점(약간 그렇다), 5점(상당히 그렇다), 6점(매우 그렇다)-좋은). 본 연구에서는 세 차원으로 이루어진 자기 표상의 내적 일관성이 .83, 타인 표상의 내적 일관성이 .89로 나타났다.

**단축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BFNE).**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Watson과 Friend (1969)가 30문항으로 개발하였던 것을 Leary (1983)가 전체 척도점수와 .50 이상의

상관이 있는 문항 12개를 뽑아서 단축형으로 제작한 것이다.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고, 2, 4, 7, 10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BFNE 척도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이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은 .91이었다.

####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비임상 표본의 우울증상을 감별하기 위해 Radloff(1977)가 제작하고 전경구, 최상진, 양병찬(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92였다.

#### **편집 척도(Paranoia Scale)**

Fenigstein과 Vanable(1992)이 제작하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로, 문항들은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를 기초로 구성되었으며, 타인에 대한 의심, 피해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한다. 20 문항을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항상 그렇다)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은 .92로 나타났다.

####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에 특정한 인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상관 크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Excel 프로그램의 함수를 사용하여 Fisher의 Z 변환 후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인의 투입 순서는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매개효과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SPSS를 위한 PROCESS 2.16.3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으로 재표집한 표본 수는 10,000개였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표준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의성을 확인하는 대신, 환원무선표집을 통해 경험적 분포를 활용하여 통계적 유의도를 구하기 때문에 높은 검증력을 제공한다(정선호, 서동기, 2016; 조영일 등, 2015).

## **결 과**

### **기술통계**

연구에 참여한 190명의 자료에서 얻은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에 따른 차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사회불안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편집 성향, 우울, 자기 표상 및 타인 표상에서는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관찰되어, 부



표 1. 기술통계량 및 성차 (N=190)

	전체	남(n=102)	여(n=88)	t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사회불안	48.56(18.91)	46.13(18.02)	51.38(19.63)	1.92
DPSOS	44.05(19.11)	46.18(19.25)	41.59(18.76)	1.66
DPES	30.81(10.88)	30.53(10.94)	31.14(10.86)	0.38
IPES	24.37 (9.13)	24.00 (8.82)	24.81 (9.52)	0.6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40.84 (8.84)	39.48 (8.45)	42.42 (9.07)	2.31*
편집	41.71(12.96)	40.51(12.67)	43.10(13.22)	1.37
우울	18.37(10.20)	15.23(10.00)	17.69(10.33)	1.67
자기 표상	71.75(10.47)	71.17 (9.96)	72.42(11.05)	0.82
타인 표상	69.22 (9.03)	69.44 (7.85)	68.97(10.26)	0.35

주.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 $p < .05$ .

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 성별을 반영하였다. 한편, 우울증상 절단 점(25점) 이상의 점수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42명이었다(조맹제, 김계희, 1993).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사회불안의 관계

Pearson 상관분석 결과, 긍정 평가에 대한

표 2. Pearson 상관분석 결과 (N=190)

	1	2	3	4	5	6
1. 사회불안	-					
2. DPSOS	.51**	-				
3. DPES	.42**	.71**	-			
4. IPES	.47**	.74**	.71**	-		
5.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45**	.31**	.34**	.34**	-	
6. 편집 성향	.43**	.54**	.51**	.60**	.30**	-
7. 우울	.45**	.47**	.51**	.40**	.37**	.59**

주.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 $p < .05$ . \*\* $p < .01$ .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 간의 상관계수는 DPSOS 점수와 DPES 점수가  $r(190)=.71, p<.01$ ; DPSOS와 IPES 점수가  $r(190)=.74, p<.01$ ; IPES 점수와 DPES 점수가  $r(190)=.71, p<.01$ 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불안과의 상관은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 점수)이  $r(190)=.51, p<.01$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DPES 점수)이  $r(190)=.42, p<.01$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IPES 점수)이  $r(190)=.47, p<.01$ 로 나타났다.

###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사회불안 특성

먼저,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에 특정적으로 관련성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우울증상 또는 편집 성향을 통제한 후 사회불안과의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 또는 편집 성향을 통제한 후에도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이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이 다른 임상적 증상에 비해 사회불안을 특정적으로 설명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Fisher의 Z 변환을 통한 상관계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의 사회불안과의 상관관계가 우울과의 상관관계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사회불안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의 상관관계가 우울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의 상관관계보다 유의하게 크지는 않았다  $Z=0.04, ns$  (IPES),  $Z=-0.01, ns$  (DPSOS),  $Z=0.26, ns$  (DPES). 편집 성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DPES 점수는 사회불안과의 상관  $r(190)=.423, p<.01$ 보다 편집 성향과의 상관  $r(190)=.60, p<.01$ 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Z=2.38, p<.05$ . 참고로, 종속변인을 편집 성향으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을 독립변인에 투입하여 회귀분석하였을 때,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DPES로 측정)은 사회불안이 아니라 편집 성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beta=.41, t=4.67, p<.01, F=40.05, p<.01$ .

표 3. 부분상관분석 결과 (N=190)

	DPSOS	DPES	IPES
우울 통제			
사회불안	.36**	.30**	.33**
편집 성향 통제			
사회불안	.37**	.23**	.31**

주.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 $p<.01$ .

###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사회불안에 대한 고유 효과

사회불안에 대한 고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추가적인 설명량을 갖는지 확인하였다(표 4). 사회불안을 종속변인으로 성별, 우울, 편집 성향 등의 통제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2단계에 추가로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변인과 부정

표 4.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예언변인	$\beta$	t	$R^2$	F	$\Delta R^2$	$\Delta F$	VIF
1	상수		3.89**					
	성별	.08	1.23	.25	20.63**	.25**	20.63**	1.02
	우울	.29	3.66**					1.55
	편집	.25	3.19**					1.55
2	상수		0.10					
	성별	.04	0.69					1.03
	우울	.20	2.62**	.33	22.23**	.08**	20.54**	1.65
	편집	.22	2.89**					1.56
	BFNE	.30	4.53**					1.19
3	상수		0.51					
	성별	.11	1.71					1.14
	우울	.10	1.32					1.85
	편집	.12	1.38					2.07
	BFNE	.25	3.78**	.39	16.77**	.07**	6.76**	1.26
	DPSOS	.29	2.85**					3.02
	DPES	-.05	-0.51					2.76
IPES	.20	1.07					2.70	

주. BFNE = 단축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 $p < .01$ .

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제외하고도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추가적인 고유한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중에서는 DPSOS 점수만이 유의미하게 추가적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분산팽창계수(VIF)가 모두 10 미만으로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Kutner, Nachtsheim & Neter, 2004).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자기 및 타인 표상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세 측면과 자기 표상은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각각  $r(190) = -.59, p < .01$ (DPSOS와 자기 표상),  $r(190) = -.46, p < .01$ (DPES와 자기 표상),  $r(190) = -.47, p < .01$ (IPES와 자기 표상). 상관차 검증 결과(단축검정), DPSOS 점수가 다른 점수들보다 더 큰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

다,  $Z=1.76, p<.05$ (DPSOS와 DPES 비교);  $Z=1.93, p=.06$ (DPSOS와 IPES 비교). 타인 표상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간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타인 표상과의 상관계수는 DPES가  $r(190)=-.52, p<.01$ 로 가장 높았지만, 다른 두 측면과의 상관 크기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Z=1.28, ns, Z=0.89, ns$ .

자기 표상 및 타인 표상의 세 가지 하위 차원에서 살펴보면, 자기 표상의 사교성 차원이 호의성이나 유능성 차원에 비해 사회불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Z=3.05, p<.01, Z=2.13, p<.05$ . 또한 자기 표상의 사교성 차원은 호의성 또는 유능성에 비해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로 측정)과 더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Z=2.79, p<.05, Z=1.36, p=.09$ . 자기 표상의 사교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내용에 따른 상관 차이를 알아본 결과, DPSOS로 측정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다른 두 해석

측면보다 유의미하게 큰 상관을 보였다,  $Z=2.80, p<.05, Z=2.34, p<.05$ . 한편, 자기 표상의 호의성, 그리고 타인 표상의 유능성 및 사교성 측면의 경우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내용에 따른 상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기 표상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의 매개효과

위 결과에서 사회불안 심각도와 자기 표상 간의 상관 크기가  $r(190) = -.37$ 인 한편,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자기 또는 타인 표상 간의 상관 크기는  $-.46$ 에서  $-.59$ 까지로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상관 크기를 보였다. 더불어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은 핵심 신념에 준하는 자기 표상뿐 아니라, 현상적 측면인 사회불안 증상과도 중간 크기의 상관을 나타냈다(표 5). 따라서 추가적으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자동적 사고로서

표 5. Perason 상관분석 결과 (N=190)

	DPSOS	DPES	IPES	사회불안
자기 표상 총점	-.59**	-.46**	-.47**	-.37**
자기 표상: 사교성	-.59**	-.38**	-.41**	-.46**
자기 표상: 호의성	-.37**	-.37**	-.35**	-.18**
자기 표상: 유능성	-.49**	-.37**	-.39**	-.27**
타인 표상 총점	-.47**	-.52**	-.44**	-.29**
타인 표상: 사교성	-.36**	-.40**	-.33**	-.19**
타인 표상: 호의성	-.42**	-.47**	-.39**	-.29**
타인 표상: 유능성	-.36**	-.39**	-.37**	-.19**

주.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DPES =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 IPES =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

\*\* $p<.01$ .

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앞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로 측정)이 사회불안에 특징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측면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세 요인 중 자기 표상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자기 표상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변인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독립변인, 매개변인, 그리고 종속변인은 표준화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단순매개모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총효과(Total Effects)를 매개변수를 거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매개변수를 거치지 않는 직접효과로 분해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한다(조

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Baron & Kenny, 1986). 먼저 회귀분석 결과, 총효과인 자기 표상의 사교성 차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t=-7.02, p<0.01$ . 타인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을 통제 후 자기 표상의 사교성 측면이 사회불안을 예측함에 있어 설명력의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영향력 있는 독립변인으로 나타나 직접효과가 유의하였다,  $t=-3.05, p<0.01$ . Hayes (2013)의 부트스트래핑 기법으로 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매개효과 계수값은 -.21이었으며, 95% 신뢰수준으로 구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32, -.12이었다(표 7). 95%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의 매개효과가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타인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자

표 6. 자기 표상의 사교성 차원과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1 (총효과)	자기 표상: 사교성	사회불안	-.46	.07	-7.02**
2	자기 표상: 사교성	DPSOS	-.59	.06	-10.03**
3	자기 표상: 사교성	사회불안	-.25	.08	-3.05**
	DPSOS		.36	.08	4.94**

주. DPSOS =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 $p<.01$ .

표 7.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의 매개효과

변수	간접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	-.21	.05	-.32	-.12

기 표상의 사교성 차원과 사회불안의 심각도의 관계에서 타인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불안과 관련해 새롭게 연구되기 시작한 사회적 상황에서 받은 긍정 평가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세 측면의 해석을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으로 구성하여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화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여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로 측정)과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IPES로 측정)은 사회불안 심각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우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한 후에는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로 측정)만이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따라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사회불안에 핵심적인 변인임이 시사된다.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에 비해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사회불안 수준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는 사실은 상대방 반응의 모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호한 상황일수록 주관적으로 편향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으므로,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모호한 상황에 처하면 긍정

적인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Amin, Foa & Coles, 1998). 긍정 평가를 받게된 이유를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내 수행이 긍정 평가를 받을만 했는지, 상대가 어떤 의도로 긍정 평가를 하게 되었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므로, 상대적으로 모호성이 큰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상대가 다음에 더 높은 기대를 해서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은 이번에 긍정적인 수행을 해냈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어 긍정 평가를 받는 상황에 있어 모호성이 더 적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을 하는 경향은 더 부정적으로 편향된 상황인식으로 이어지고, 결국 더 높은 사회불안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의 내용이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기저신념으로 알려진 부정적인 자기상(Clark & Wells, 1995; Heimberg et al., 2010)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로 측정)과 자기 표상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두 해석 변인의 상관보다 더 큰 상관을 보인다는 본 연구 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구체적으로,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을 구체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자기 표상의 사교성 측면이 사회불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이는 권석만과 김지영(2002)의 연구에서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대인행동이 자기 표상의 사교성, 유능성 요인과 관련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며, 가해염려 사회불안 집단과 일반 사회불안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 표상의 사교성 차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전체진과

이훈진(2017)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하위영역 별로 자기개념의 특성을 구분하여 사회불안과 우울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김정호, 조용래, 이민규(2000)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능력 변인이 다른 하위영역보다도 사회불안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타인 표상은 자기 표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불안과의 상관이 낮았던 결과도, 대인관계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 결과(권석만, 김지영, 2002)와 일관된다.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이 사회불안과 그 기저 신념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변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자기개념의 사교성 측면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심층적인 수준의 자기개념과 긴밀한 관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의 심각도를 잘 반영하는 자동적 사고임이 시사된다.

한편, 선행 연구 결과(Vasilopoulos & Banerjee, 2010)와 달리 세 가지 측면 중 긍정 평가에 담긴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DPES로 측정)은 사회불안에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편집 성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 측면은 상대방의 발언 속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점에서 편집 성향의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선행 연구에서는 편집 성향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인지 변인으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회불안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통합적으로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중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DPSOS로 측정)이 사회불안의 심각도를 예측하는 데 가장 유용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유도된 자기상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태불안이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고, 긍정적 자서전적 기억을 회상하고 긍정 단어를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보고되었다(김현기, 안정광, 권정혜, 2015; Ng & Abbott, 2016).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불안 증상이 많아지고 수행의 질이 저하되는 역효과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연구도 있다(Budnick et al., 2015). 종합하면, 사회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인지도식과 일관되게 긍정적인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긍정 평가를 받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짐으로써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공고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긍정 평가 및 긍정 정서 경험을 면밀히 살피는 연구가 사회불안장애를 유지, 심화시키는 기전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적 활용가능성 측면에서도 함의를 갖는다. 타인의 칭찬은 긍정적인 평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로서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 반증 경험으로 체화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인 동시에, 주관적이고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하도록 돕는 단서라 할 수 있다.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합당한 평가를 받더라도 그에 대해 부정적 해석을 하는 것은

사회불안 증상을 극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Wallace & Alden, 1997; Weeks, 2010; Wells et al., 1995).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라면서도 막상 칭찬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역설적인 현상을 이해한다면, 사회불안장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인지행동치료에서(조용래, 원호택, 표경식, 2000) 치료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인지치료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정체된 사람들에게 긍정 평가를 받은 후의 경험을 자세히 살핀다면 내담자를 이해하고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회불안 임상 집단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망상과 유사한 경험을 한 빈도가 정상집단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반복검증된 바 있다(Saha, Scott, Varghes and McGrath,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 중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해석은 사회불안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임상 집단에서도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우울, 사회불안 간의 차별적 연관성을 갖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우울보다 사회불안과 더 큰 연관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으나(Vassilopoulos & Banerjee, 2010; Weeks, 2010),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사회불안에 비슷한 정도로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 우선 사용한 척도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II)를 사용했으나, 본 연구는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CES-D 척도를 썼다는 점과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Liebowitz 사회불안 척도(ISAS)를 사용한 것이 차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Weeks(2015)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상관 크기를 보였으며, 예상과 달리 DPSOS 중 세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귀인 요인은 사회불안에 특징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공병률과 관련된 설명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또한 사회불안과 우울 증상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가능하다(Barlow, DiNardo, Vermilyea, Vermilyea, & Blanchard, 1986; Brown, Campbell, Lehman, Grisham, & Mancill, 2001). 나아가, 사회불안과 우울은 무쾌감증(anhedonia), 낮은 긍정정서성과 부정적인 자기상으로 인한 주관적 경험의 왜곡 등의 심리적 특성을 공유하는 바, 우울 장애의 경우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긍정 평가에 대한 가치절하가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된 것일 가능성이 시사된다(Blanco & Joormann, 2017; Jordan, et al., 2017; Reichenbeger et al., 2017; Weeks, 2015). 그렇지만,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울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사회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바, 이 해석 편향이 우울과 구별되는 사회불안에 특징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특성을 좀 더 상세히 밝히고, 다른 임상 증상과의 연관성을 명료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긍정정서 경험이나 기존에 사회불안과 함께 연구된 다른 변인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연구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연구(Alden et al., 2008; Brown et al., 1998; Kashdan, 2007; Vassilopoulos & Banerjee, 2010; Weeks, 2010, Weeks & Zoccola, 2015)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낮은 긍정정서성이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해석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불안장애에서 우울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낮은 긍정정서가 증상 심각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Brown, Chorpita, & Barlow, 1998; Kashdan, 2007; Morrison & Heimberg, 2013)와 긍정정서는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접근-회피 갈등의 회피동기와 안전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Alden & Trew, 2013; Trew & Alden, 2012).

또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부적응적 완벽주의나 삶의 만족도 중 개인적 성장 영역과 관련하여 고유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를 선행연구에서 뽑내지 않으려는 태도와 관련지어 논의한 바 있다(Dryman, Gardner, Weeks & Heimberg, 2016; Yap, Gibbs, Francis & Schuster, 2016). 앞으로 긍정 평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현재의 자기 평가뿐 아니라 이상적 자기, 타인관점의 의무적 자기, 자기 구성(self-construal) 또는 겸손을 강조하는 문화적 배경 등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권석만, 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김순희 (2010).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사회불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호, 조용래, 이민규 (2000). 사회불안과 우울의 자기개념에 대한 비교.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15.

김현기, 안정광, & 권정혜 (2015). 사회불안 집단과 비사회불안 집단의 자기상에 따른 자서전적 기억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1(1), 21-41.

박선영 (2003). 사회불안 유발상황의 구분 및 사회불안 하위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영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은혜, 노상선, 조용래 (2009). 부정적 사회적 자기개념과 정서조절곤란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9(1), 75-89.

이강아, 홍혜영 (2013). 대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271-2290.

이소연, 오인수 (2015).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애가 대학생의 발표불안에 미치는 관계: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부정적 평가두려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8), 53-75.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

- 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251-264.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Paranoia Scale)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4(1), 83-94.
- 이훈진, 원호택 (1995). 임상분과: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7-290.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 - 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영주, 박기환 (2011). 긍정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 긍정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편향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1(2), 59-73.
- 전혜진, 이훈진 (2017). 가해염려 사회불안 집단의 자기 및 타인 표상과 자기초점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3(1), 67-94.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조맹제, 김계희 (1993). 主要憂鬱症 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진단적 타당성 연구. 神經精神醫學, 32(3), 381-399.
- 조성진, 전홍진, 김무진, 김장규, 김선욱, 류인균, 조맹제 (2001). 한국 일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 증상 유병률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神經精神醫學, 40(4), 627-639.
-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임상 연구에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의 비교 및 통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4), 1113-1131.
- 조용래, 원호택, 표경식 (2000). 사회공포증에 대한 집단인지치료의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2), 181-206.
- 한상연 (2015).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의 가치절하와 사회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74.
- Alden, L. E., Taylor, C. T., Mellings, T. M., & Laposa, J. M. (2008). Social anxiety and the interpretation of positive social ev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4), 577-590.
- Alden, L. E., & Trew, J. L. (2013). If it makes you happy: Engaging in kind acts increases positive affect in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Emotion, 13*(1), 64-7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Amin, N., Foa, E. B., & Coles, M. E. (1998).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10), 945-957.
- Bar-Haim, Y., Lamy, D., Pergamin, L.,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07). Threat-related attentional bias in anxious and nonanxious individuals: a meta-analytic study. *Psychological Bulletin, 133*(1), 1.
- Barlow, D. H., DiNardo, P. A., Vermilyea, B.

- B., Vermilyea, J., & Blanchard, E. B. (1986). Co-morbidity and depression among the anxiety disorders: issues in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4(2), 63-7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 A. T. (1991). Cognitive therapy as the integrative therapy.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1(3), 191-198.
- Beck, J. S. (1995). *Cognitive therapy: Basics and beyond*. New York: Guilford.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lanco, I., & Joormann, J. (2017). Examining facets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the relation among lack of positive affect, negative cognitions, and emotion dysregulation.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20. e51. Doi:10.1017/sjp.2017.43
- Brown, T. A., Campbell, L. A., Lehman, C. L., Grisham, J. R., & Mancill, R. B. (2001). Current and lifetime comorbidity of the DSM-IV anxiety and mood disorders in a large clinical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4), 585-599.
- Brown, T. A., Chorpita, B. F., & Barlow, D. H. (1998).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imensions of the DSM-IV anxiety and mood disorders and dimensions of negative affect, positive affect, and autonomic arousa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2), 179.
- Budnick, C. J., Kowal, M., & Santuzzi, A. M. (2015). Social anxiety and the ironic effects of positive interviewer feedback. *Anxiety, Stress, & Coping*, 28(1), 71-87.
- Butler, G., Fennell, M., Robson, P., & Gelder, M. (1991). Comparison of behavior therapy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the treatment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1), 167-175.
- Chen, Y. P., Ehlers, A., Clark, Y. P., & Mansell, W. (2002). Patients with generalized social phobia direct their attention away from fac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6), 677-687.
- Clark, D. B., Feske, U., Masia, C. L., Spaulding, S. A., Brown, C., Mammen, O., & Shear, M. K. (1997). Systematic assessment of social phobia in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and Anxiety*, 6(2), 47-61.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Ed.).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New York: Guilford Press.
- Dryman, M. T., Gardner, S., Weeks, J. W., & Heimberg, R. G. (2016). Social anxiety disorder and quality of life: How fears of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 relate to specific domain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8, 1-8.
- Eisner, L. R., Johnson, S. L., & Carver, C. S. (2009). Positive affect regulation in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

- 645-649.
- Fergus, T. A., Valentiner, D. P., McGrath, P. B., Stephenson, K., Gier, S., & Jencius, S. (2009).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8), 1177-1183.
- Grzywacz, J. G., Hovey, J. D., Seligman, L. D., Arcury, T. A., & Quandt, S. A. (2006). Evaluating short-form versions of the CES-D for measuring depressive symptoms among immigrants from Mexico.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8*(3), 404-424.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Heimberg, R. G., & Becker, R. E. (2002).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social phobia: Basic mechanisms and clinical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 Heimberg, R. G., Brozovich, F. A., & Rapee, R. M., (2010).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social anxiety disorder: Update and extension. In S. Hofmann & P. DiBartolo (Eds.) *Social anxiety: Clinical, developmental, and social perspectives, 2*, (pp. 395-422). Oxford, England: Academic Press.
- Hirsch, C. R., & Clark, D. M. (2004). Information-processing bias in social phobia.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7), 799-825.
- Hirsch, C. R., Clark, D. M., Mathews, A., & Williams, R. (2003). Self-images play a causal role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8), 909-921.
- Howell, A. N., Buckner, J. D., & Weeks, J. W. (2016). Fear of positive evaluation and alcohol use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the unique impact of drinking motives. *Anxiety, Stress, & Coping, 29*(3), 274-286.
- Jordan, D. G., Winer, E. S., Salem, T., & Kilgore, J. (2017). Longitudinal evaluation of anhedonia as a mediator of fear of positive evaluation and other depressive symptoms. *Cognition and Emotion, 1*-11.
- Kashdan, T. B. (2007). Social anxiety spectrum and diminished positive experience: theoretical synthesis and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348-65.
- Kashdan, T. B., Weeks, J. W., Savostyanova, A. A. (2011). Whether, how, and when social anxiety shapes positive experiences and events: A self-regulatory framework and treatment im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5), 786-799.
- Kocijan, L., & Harris, L. M. (2016). Fear of Positive Evaluation and Social Anxiety. *Behaviour Change, 33*(1), 15-26.
- Kohout, F. J., Berkman, L. F., Evans, D. A., & Cornoni-Huntley, J. (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2), 179-193.
- Kutner, M., Nachtsheim, C., Neter, J. (2004). *Applied Linear Statistical Models (5th Edition)*. Boston: McGraw-Hill Irwin.
- Laposa, J. M., Cassin, S. E., & Rector, N. A. (2010). Interpretation of positive social events in social phobia: An examination of cognitive correlates and diagnostic distinc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2), 203-210.
- Lear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Bulletin*, 9(3), 371-375.
- Marks, I. M. (1969). *Fears and phobias*. Oxford, England: Academic Press.
- Menatti, A. R., DeBoer, L. B. H., Weeks, J. W., & Heimberg, R. G. (2015). Social anxiety and associations with eating psychopathology: Mediating effects of fears of evaluation. *Body Image*, 14, 20-28.
- Morrison, A. S., & Heimberg, R. G. (2013). Social anxiety and social anxie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9, 249-274.
- Ng, A. S., & Abbott, M. J. (2016). The Effect of Negative, Positive, and Neutral Self-imagery on Symptoms and Processes in Social Anxiety Disord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0(4), 479-495.
- Nichols, K. A. (1974). Severe social anxiety.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47(4), 301-306.
- Pretzer, J. L., & Beck, A. T. (2005). A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Disorders. In M. F. Lenzenweger & J. F. Clarkin (Eds.). *Major theories of personality disorder* (pp. 43-113). New York: Guilford Press.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8), 741-756.
- Rapee, R. M., & Spence, S. H. (2004).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empirical evidence and an initial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7), 737-767.
- Reichenberger, J., Wiggert, N., Agroskin, D., Wilhelm, F. H., & Blechert, J. (2017). No praise, please: Depressive symptoms, reactivity to positive social interaction, and fear of positive evaluation.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54, 186-194.
- Reichenberger, J., Wiggert, N., Wilhelm, F. H., Weeks, J. W., & Blechert, J. (2015). "Don't put me down but don't be too nice to me either": Fear of positive vs. negative evaluation and responses to positive vs. negative social-evaluative film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6, 164-169.
- Saha, S., Scott, J., Varghese, D., & McGrath, J. (2012).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are associated with delusional-like experiences: a replication study based on a National Survey of Mental Health and Wellbeing. *BMJ open*, 2(3), e001001.
- Scholing, A., & Emmelkamp, P. M. (1993). Cognitive and behavioural treatments of fear of blushing, sweating or trembl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2), 155-170.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669.
- Steele, C. M., Spencer, S. J., & Lynch, M. (1993). Self-image resilience and dissonance: the role of affirmational re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6), 885-896.
- Swann, W. B., & Schroeder, D. G. (1995). The search for beauty and truth: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reactions to evalu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1307-1318.
- Taylor, C. T., Bomyea, J., & Amir, N. (2010). Attentional bias away from positive social information mediates the link between social

- anxiety and anxiety vulnerability to a social stresso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4), 403-408.
- Trew, J. L., & Alden, L. E. (2012). Positive Affect Predicts Avoidance Goals in Social Interaction Anxiety: Testing a Hierarchical Model of Social Goals.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1(2), 174-183.
- Turk, C. L., Heimberg, R. G., Luterek, J. A., Mennin, D. S., & Fresco, D. M. (2005). Emotion dysregulation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 comparison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1), 89-106.
- Vassilopoulos, S. P., & Banerjee, R. (2010).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the discounting of positive interpersonal event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8, 597-609.
- Wallace, S. T., & Alden, L. E. (1995). Social anxiety and standard setting following social success or failu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6), 613-631.
- Wallace, S. T., & Alden, L. E. (1997). Social phobia and positive social events: The price of succ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16-424.
- Wang, W. T., Hsu, W. Y., Chiu, Y. C., & Liang, C. W. (2012). The hierarchical model of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depression: The critical roles of fears of evalu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6(1), 215-224.
- Weeks, J. W. (2010). The Disqualification of Positive Social Outcomes Scale: A novel assessment of a long-recognized cognitive tendency in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8), 856-865.
- Weeks, J. W. (2015).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a hierarchical model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as a key unique factor in social anxiety.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4(2), 103-116.
- Weeks, J. W., Heimberg, R. G., & Rodebaugh, T. L. (2008). The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cale: Assessing a proposed cognitive component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1), 44-55.
- Weeks, J. W., Heimberg, R. G., Rodebaugh, T. L., & Norton, P. J. (2008).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3), 386-400.
- Weeks, J. W., Jakatdar, T. A., & Heimberg, R. G. (2010). Comparing and Contrasting Fears of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as Facets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1), 68-94.
- Weeks, J. W., & Howell, A. N. (2012). The Bivalent Fear of Evaluation Model of Social Anxiety: Further Integrating Findings on Fears of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1(2), 83-95.
- Wells, A., Clark, D. M., Salkovskis, P., Ludgate, J., Hackmann, A., & Gelder, M. (1995). Social phobia: The role of in-situation safety behaviors in maintaining anxiety and negative beliefs. *Behavior Therapy*, 26(1), 153-161.
- Weeks, J. W., & Zoccola, P. M. (2015). "Having the heart to be evaluat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fears of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on emotional and cardiovascular

- responses to social threa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6, 115-126.
- Williams, J. M. G. (2004). Experimental cognitive psychology and clinical practice: Autobiographical memory as a paradigm case. In J. Yiend (Ed.). *Cognition, emotion and psychopathology* (pp.251-269).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son, J. K., & Rapee, R. M. (2005). Interpretative biases in social phobia: Content specificity and the effects of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3), 315-331.
- Yap, K., Gibbs, A. L., Francis, A. J., & Schuster, S. E. (2016). Testing the bivalent fear of evaluation model of social anx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positive evaluation, social anxiety, and perfectionism. *Cognitive Behaviour Therapy*, 45(2), 136-149.

원고접수일 : 2017. 11.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1. 15.

게재결정일 : 2018. 02. 09.

##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and Social Anxiety

Jeeyun Kim

Hoon-Jin Lee

Sung-Ji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and social anxiety. The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was conceptualized as containing three aspects based on recent literatures: the interpretation that one cannot meet heightened expectations, the interpretation that others favorably evaluated oneself, and the interpretation of doubting the authenticity of the positive eval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and social anxiety was examined in a sample of 190 college students. As a result, two aspects of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the interpretation that one cannot meet heightened expectations and that others favorably evaluated oneself) significantly predicted the severity of social anxiety. When the effects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depression were controlled, the interpretation that others favorably evaluated oneself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social anxiety.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interpretation that others favorably evaluated oneself was observ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presentation sociability factor and social anxiet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 social anxiety, negative interpretation of positive evaluation, self-presentation



**부록 1. 사회불안 척도(LSAS)**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입니다. 자신이 아래 제시된 상황에 있다고 할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얼마나 불안을 느끼며(불안), 그 상황을 얼마나 회피하려고 하는지(회피)를 각각 숫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불안 : 제시된 상황이라면, 당신은 얼마나 불안할 것이라 예상합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음 0 - 1 - 2 - 3 매우 불안함

회피 : 제시된 상황이라면, 당신은 얼마나 이 상황을 회피할 것이라 예상합니까?

전혀 회피하지 않음 0 - 1 - 2 - 3 항상 회피함

		불안	회피
1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전화를 할 때		
2	소모임에 참여할 때		
3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때		
4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실 때		
5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 할 때		
6	청중들 앞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7	사교적인 모임에 갈 때		
8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할 때		
9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글씨를 쓸 때		
10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11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12	낯선 사람들과 처음으로 만날 때		
13	이미 사람들이 앉아있는 방에 들어갈 때		
14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15	공식적인 모임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때		
16	시험 볼 때		
17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반대 의사를 표현할 때		
18	잘 모르는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볼 때		
19	모임에서 발표할 때		
20	상점에서 물건을 교환할 때		
21	파티를 열어 사람들을 초대할 때		
22	물건을 사도록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때		

**부록 2. 긍정적 사건에 대한 해석 척도(IPES)**

아래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찾아 하나의 해당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기색을 보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걱정이 된다.	1	2	3	4	5	6	7
2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음번에 내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단점이 있다.	1	2	3	4	5	6	7
3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으면 염려스러워진다.	1	2	3	4	5	6	7
4	사교적 만남이 잘 이루어질 때, 그것은 대개 그 다음 만남은 그만큼 잘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1	2	3	4	5	6	7
5	나는 대인관계가 너무 잘 되어가면, 나중에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를 품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4	5	6	7
6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다음에 만날 때 내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1	2	3	4	5	6	7
7	사회적으로 잘 해내고 나면 나는 불편해진다.	1	2	3	4	5	6	7
8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고 있다.	1	2	3	4	5	6	7

**부록 3. 긍정적 평가에 대한 평가절하 척도(DPES)**

아래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찾아 하나의 해당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내게 매우 친절한 사람은 겉으로만 그러는 것 같아서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꺼리게 된다.	1	2	3	4	5	6	7		
2 누군가 내게 관심을 보일 때, 나는 그것이 표면적이고 잠시 뿐인 관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6	7		
3 나를 좋게 이야기 해주는 사람은 그저 호감 받기를 원할 뿐이지, 그 말이 진짜 내가 좋다는 뜻은 아니다.	1	2	3	4	5	6	7		
4 사람들은 좀처럼 나에게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1	2	3	4	5	6	7		
5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손한 겉모습 뒤로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운다.	1	2	3	4	5	6	7		
6 사람들이 공손하게 구는 것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1	2	3	4	5	6	7		
7 내게 너무 친절한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상대방이 내게 관심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 사람의 동기를 믿기가 어렵다.	1	2	3	4	5	6	7		
9 누군가 나를 보고 웃음 지으면 그 사람이 나를 비웃는 거라고 느껴진다.	1	2	3	4	5	6	7		
10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보이는 것은 나에게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1	2	3	4	5	6	7		

**부록 4. 긍정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가치절하 척도(DPSOS)**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9)에 표시해 주십시오. 각 문항은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과 함께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웬만큼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 용																	
1	누군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기 쉽다고 느끼곤 한다.							0	1	2	3	4	5	6	7	8	9
2	나는 “운이 좋은 날”에만 사회적으로 잘 풀린다고 느낀다.							0	1	2	3	4	5	6	7	8	9
3	사람들은 단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내 농담이 재미없더라도 웃어줄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4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나는 내 공로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충분히 칭찬할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5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그건 나보다는 상대방 때문일 거라고 여긴다.							0	1	2	3	4	5	6	7	8	9
6	나는 나의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를 별 것 아니라고 일축해버릴 때가 많다.							0	1	2	3	4	5	6	7	8	9
7	다른 사람들이 나와 얘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낸 듯한 때, 상대방이 그저 예의를 차린 건지 의심이 된다.							0	1	2	3	4	5	6	7	8	9
8	나는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다.							0	1	2	3	4	5	6	7	8	9
9	내가 누군가와 굉장히 잘 지낸다면, 그건 대개 상대방이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나는 칭찬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0	1	2	3	4	5	6	7	8	9
11	사람들은 단지 나에게 맞장구 쳐주기 위해 내 얘기가 재미있다고 말해 준다는 생각이 든다.							0	1	2	3	4	5	6	7	8	9
12	나는 “말 걸기 쉬운”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편이다.							0	1	2	3	4	5	6	7	8	9
13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다른 참석자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지와 더 관련이 있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 맺는 내 능력과는 별 상관없을 것이다.							0	1	2	3	4	5	6	7	8	9



나는 ( )한 사람이다.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강한	1	2	3	4	5	6	약한
나쁜	1	2	3	4	5	6	좋은
소극적인	1	2	3	4	5	6	적극적인
무능한	1	2	3	4	5	6	유능한
따뜻한	1	2	3	4	5	6	차가운
대인관계가 좁은	1	2	3	4	5	6	대인관계가 넓은
선한	1	2	3	4	5	6	악한
케으른	1	2	3	4	5	6	부지런한
감정표현을 못하는	1	2	3	4	5	6	감정표현을 잘하는
호의적인	1	2	3	4	5	6	적대적인
어리석은	1	2	3	4	5	6	똑똑한
이해심이 적은	1	2	3	4	5	6	이해심이 많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1	2	3	4	5	6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을 잘 못 사귀는	1	2	3	4	5	6	사람을 잘 사귀는
신뢰할 수 없는	1	2	3	4	5	6	신뢰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이 많은	1	2	3	4	5	6	긍정적인 면이 많은
대인관계에서 능동적인	1	2	3	4	5	6	대인관계에서 수동적인